

社會科學 분야에서의 教養教育

白 光 一

(仁荷大 政治外交學科)

1. 序 論

社會의 변화에 따라 大學의 역할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大學이 지적 자율성에 기초한 엘리트教育에 그 理念과 目標을 두어 왔었다. 그러나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대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기능인의 양성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대 產業社會의 요구에 따라 대학의 수는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대학은 문호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대중교육 기관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도 시민 자질을 형성하기 위한 전인교육보다는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교육 중심의 대학은 產業社會가 요구하는 전문 기능인을 배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產業社會가 안고 있는 내재적인 인간 자신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겠다.

現代產業社會의 일반적인 특징은 고도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요청에 따라 학문이 세분화·전문화되고, 산업 형태가 기계화 내지 대기업화되고 있으며,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조직화되고, 이익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치열한 사회경쟁을 초래하며, 금전과 재화 중심의 배급사상이 인간가치의 진도현상마저

가져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 產業社會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가치의 박탈 즉, 人間疎外 현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產業社會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는 인간 회복, 즉 전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고 사회, 국가 및 세계관의 확립을 통한 自己發展은 전공교육을 통한 기능인의 양성보다는 教養教育을 통한 人間教育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교양교육 중에서도 社會科學分野의 教養教育이야말로 현대 產業社會에서 좌표를 찾을 수 있는 全人教育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社會科學分野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의 목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教養教育의 개념 및 목표

대학 教養教育의 概念과 目標은 대학의 이념과 목표가 全人教育에 중점을 두느냐 專門教育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교양과목이라 함은 일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해당과의 전문학술 연구상 필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규정이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敎養教育의 개념도 다양하게 풀이되고 있다. 즉 이것은 교양교육을 인간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인가, 전공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것인가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과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敎養教育의 다양성은 1984년도에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실시한 大學評價(敎養教育分野)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목표를 인격의 완성과 전공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대학교육의 목표가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뿐만 아니라 인격을 도야하고 지적·경서적으로나 조화된 전인교육도 제공해야 한다는 양면성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전문적 지식이 전철히 요청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학이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교양교육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전문분야를 세분화하고 강화시킨 결과는 상대적으로 전체에 대한 무지를 가져오게 되는 소위 전문가 바보(specialist fool)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습득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학문과 현실 전체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하고, 조화된 인격을 바탕으로 이들 지식과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敎養教育 또한 전문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양교육의 목표는 폭 넓은 지식을 습득케 하여 전체 속에서의 인간좌표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창조력과 개방성을 길러 주며, 현실 영역에서의 가치 선택 내지 평가 능력을 함양하는 데 두고 있다.

3. 교양교육의 實態와 問題點

우리나라 大學에서의 敎養教育은 해방 이후 미국 대학의 敎育制度를 본받아 敎養教育課程이 각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시작되어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양교육의 이념,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우리 나

름대로의 충분한 검토 없이 미국 대학 교양과정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비판과 반성의 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험대학을 통하여 敎養教育이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대학(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140학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은 교양, 전공기초, 전공 및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敎養教育의 이수 학점은 敎育法 시행령 제119조 3항에 따라 총 이수 학점의 30% 이상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4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양과목 이수 학점의 구성을 보면, 교양필수 과목 가운데는 敎育法 시행령 제119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政策的으로 권장하는 이른바 국책과목인 국민윤리, 한국사, 교련, 체육이 있으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및 국어와 같이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도구적 성격의 교과과목과 균형 교양과목이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순수 교양과목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균형교양이란 자기 전공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이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구별되어진다. 자연과학은 記述·分析·說明을 하는 학문이며, 인문과학은 평가·판단·비판을 하는 학문이고, 사회과학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설명과 평가를 하는 학문이라 하겠다. 이것들은 논리적 사고, 상상적 사고, 관계적 사고를 다루는 것으로, 이러한 분야의 교양교육을 받음으로써 현실에 대처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고 방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 이수 학점수로 총학점의 30%인 42학점 내외를 부과하고 있다. 42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중에는 법령에 의한 교양필수 과목인 국민윤리·국사·체육·교련에 14학점이 평균적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국어·영어·제2

외국어와 같은 도구과목에 13학점 정도가 부여되어 순수선택 교양은 15학점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학교에 따라서는 전공기초 과목도 15학점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순수교양의 폭은 아주 좁아지고 있다. 이것은 균형교양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한 과목 정도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 형식적인 교양에 불과하다. 이것도 비전공 영역에서 주로 '개론', '입문'이란 이름이 붙은 평이한 수준과 개관적인 내용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균형교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균형 있는 과목의 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이수율이 인문계 과목 75.1%, 사회계 과목 4.7%, 자연계 과목 20.2%로서 사회계열이 교양교육에서 경시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의 교양교육 실태를 대표적인 선택과목이랄 수 있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과 국책과목이긴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의 교양 필수로 되어 있는 國民倫理 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4. 社會科學分野 교양교육의 實態

社會科學이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 사회현상에 관한 경험과학을 총칭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그 자체가 과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政治學, 經濟學, 社會學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敎養教育은 전공교육을 통한 각 분야의 전문인 양성에 선행하여 보다 폭이 넓은 人間敎育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社會科學 분야의 교양교육은 사회현상의 분석을 통하여 ① 올바른 가치판단과 역사적 안목, ② 사회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양식 있는 교양인으로서의 양성, ③ 社會生活에서 직면하는 제반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길러 주는데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교육환경적인 요소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관·세계관의 정립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분야의 교양교육이 모두 그러하듯이, 社會科學 분야의 교양교육 실태를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1984년 韓國大學敎育協議會가 전국 110개 대학(校)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 교양교육의 실태분석 자료에 의하면 교수의 자질 문제, 담당 교수와 학생수의 문제, 교육방법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과목에 있어서 담당 교수의 자질을 보면 조교수 이하 전임강사의 하위직급 교수들의 담당율이 너무 높다. 경제학은 58%, 사회학은 71%, 정치학은 48% 정도를 조교수 및 전임강사인 하위직급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임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전체 담당 교수 중에서 전임강사들의 담당 비율만을 보더라도 경제학 34%, 사회학 38%, 정치학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표 2>의 담당 교수들의 學位 소지를 보면 석사학위 소지자가 3과목 전체적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과목별로 보면 경제학

<표 1> 담당 교수의 직급별 현황

과목명	대학수	총교수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경제학	30	76	18	14	18	26	25
사회학	27	62	11	7	20	24	20
정치학	30	59	15	16	18	10	18

<표 2> 담당 교수의 학위 현황

과목명	대학수	교수수	박사	석사	학사
경제학	30	76	19	56	1
사회학	27	62	19	43	
정치학	30	59	27	32	

<표 3> 담당 교수의 교육경력 현황

과목명	대학수	총교수수	8년 이상	4~7년	3년 이하
경제학	30	76	27	27	22
사회학	27	62	27	14	21
정치학	30	59	27	17	15

73%, 사회학 69%, 정치학 54%로 나타나 있고 심지어는 학사학위 소지자도 있다. 물론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부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경력이나 열성에 따라서는 하위학위 소지자도 우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능력 평가는 학위 소지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능력은 교육경력에 따라 평가할 수도 있다.

〈표 3〉의 교육경력을 보더라도 사회과학 분야의 교양과목이 경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의 경우 3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수가 29%, 사회학은 34%, 정치학은 25%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대부분의 교육경력이 많은 상위직급 교수들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양과목은 등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제 대학원을 막 졸업한 3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전임강사들이 교양과목을 담당하게 되며, 심지어는 교양과목의 많은 부분을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전임교수와 시간강사들의 담당 비율을 보면 경제학의 경우는 시간강사가 전체의 33%, 사회학은 32%, 정치학은 31%를 차지하고 있다.

학급규모를 볼 때도 사회과학 분야의 敎養教育은 대단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학의 경우, 한 학급당 수강생수는 평균 115명, 사회학·정치학은 139명이며, 학급당 최고 수강생은 경제학 330명, 사회학 360명, 정치학 380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단위 수업을 통해서 강의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를 통한 활발한 사고력의 향상과 비판·판단 능력을 키워 주는 통찰력과 능동적인 교육자세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全人教育이란 기대할 수 없으며, 敎授의 일방적인 강의로 단편적인 지식만 주입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교육자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과학 분야의 교양선택인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과 같은 과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國策科目이라 할 수 있는 敎養必須科目인 國民倫理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윤리교육은 1971년부터 전국 대학(교)에서 교양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 온 政治教育(political education) 내지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 교육으로 국민의 의식구조 속에 국가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고, 행동화시켜 생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면한 역사적 전통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신념체계 형성에 기초가 되는 올바른 價値觀·國家觀·世界觀을 정립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윤리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983년 2학기과 1984년 1학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 대학(교)의 국민윤리 담당 교수는 전체 1,291명으로 전임교수가 676명, 외래강사가 615명으로 48%인 거의 절반을 외래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학급당 수강생수도 전국 평균 108명으로, 單科大보다는 綜合大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가, 지방 대학보다는 대도시의 대학에서 학급당 수강생 수가 많은 대단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당 교수들의 학위 소지를 분석해 보면 전임교수 676명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259명으로 38.4%, 석사학위 소지자는 369명으로 54.6%, 학사학위 소지자도 38명으로 5.6%나 된다. 외래강사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겨우 9.9%이며, 84% 정도가 석사학위만 소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 교수들의 교육경력에 있어서도 전임교수의 경우 20%가 3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전임강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래강사들의 경우는 48% 정도가 3년 이하의 교육경력으로 이제 갓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다.

담당 교수의 자질 문제에 있어서, 학위 소지의 여부나 교육경력 문제 외에도 담당 교수들의 전공 분야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 정치학, 철학, 국민윤리를 전공한 교수들이 국민윤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들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國民倫理 科目을 전국 대학에서 교양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

지만, 일부 교수들 중에는 이 과목을 기피하는 경향과 교재의 내용이 너무 방대함에도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국민윤리 교육의 경시풍조와 전공 영역의 다양화는 담당 교수들의 성의 부족과 전문 지식의 결여를 초래하여 학생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며,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육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교양교육의 改善方案

敎養教育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폭 넓은 지식을 습득케 하여 현대의 인간과 학문의 위치를 명백히 하여 이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를 가능케 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創造力과 개방성을 길러 주며, 현실 영역에서의 가치 선택 내지 평가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교육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1) 순수 교양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

현재의 제도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교양필수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社會科學分野의 경우 겨우 1~2 과목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의미하는 교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현재 교양필수로 국책이나 교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교양과목이라고 할 수 없다. 학문을 하는 데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어와 영어 및 제2외국어 같은 것은 특별시험을 거쳐 면제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국책과목이라 하여 모든 대학에서 필수로 하는 의무적인 교과목으로 학생들의 선택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여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양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국민윤리, 국사, 체육, 국어, 영어 등은 과목의 명칭이 고등학교의 과목과 일치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교양교육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이에 따른 교양교육의 기피현상은 교육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며, 대학교육 자체에 대해 서까지 회의를 갖게 한다.

2)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

교양교육의 제도를 개선하여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다 해도 선택할 과목이 제한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많은 대학에서의 교양선택 과목은 학문 분야의 개론이나 입문 과목을 설강하여 전공기초 과목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과목은 전공기초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문의 기초 영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제나 문제 중심의 포괄적인 교과목을 개발하여 여러 인접학문의 종합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종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학의 경우, 하바드대학과 콜럼비아대학은 일찍부터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목적과 운영방법을 제시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바드대학에서는 과거 전문교육의 치중으로 나타난 무비판성, 비인간화, 비도덕성의 경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중핵 교과과정(core curriculum)을 개발하여 실험 운영해 오고 있다. 사회적·철학적 분석 분야는 현대 사회의 인간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이론적 도구를 학생들에게 갖게 하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경험되는 선택과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분석과 윤리의 규명영역에서 설강되고 있는 과목명을 보면,

인간의 본성, 범죄와 인간성, 전쟁과 평화, 여성과 사회와 문화, 문화와 인류의 발달, 법과 질서, 민주주의 이론, 논리학과 추리 등 다양한 교과목이 설강되고 있다. 그리고 동경대학의 경우도 하바드대학과 마찬가지로 1978년부터 '종합과학'이라는 강의를 입안하여 교양과목의 다양성과 종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대학에서는 주제와 문제영역 중심으로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의 사회과학 분야를 보면,

한국인의 역사의식,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

현대 미국의 사회와 문화, 전쟁과 평화, 경제적 자유와 평등, 여성과 사회 등 다양한 과목이 있으며, 인하대학의 경우도 과거 개론식의 강의명에서 탈피되어 주제와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교양과목을 대폭 개편하여 1986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자본주의의 이해, 한국경제의 이해, 경제와 국민생활, 국제정치학의 이해,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여성과 사회, 여성과 법률, 법과 시민생활, 사회과학의 이해, 산업사회와 노동문제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몇 대학에서 설강하고 있는 이러한 과목들은 모든 대학에서 검토하고 연구·발전시켜야 교양과목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교양선택 과목을 설강하여도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양필수 과목을 최대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전공과목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전공과목에 있어서 전공필수 과목을 줄이고 전공선택과 교양선택 중에서 최대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양과목을 학기별로 나누어 설강한 것이 아니라 1~2학기 계속하여 전공과목을 설강하여 선택의 기회를 최대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개성이나 적성 및 취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4년간에 걸친 이수 방법

教養科目은 대학 4년간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교양과목은 1~2학년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 전공기초나 도구과목이라던 저학년에서 이수하여야 하지만 교양과목은 전공과목과 병행하여 이수하는 것이 素人敎育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은 전공에 들어가기 전에 1학년 때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공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이 교양과정만 부여됨으로써, 임시 위주로 시달린 학생에게 고등학교의 교과목과 비슷한 과목을 다시 이수하게 하여 대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이러한 회의가 다른 곳으로 발

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학문의 취미를 교양시키기 위해서도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은 4년 동안 분산해서 이수되어야 한다.

4) 담당 교수의 자질 향상

교양과목은 전공에 비하여 경시되는 풍조가 있어 교육경력이 비교적 많은 상위직급 교수가 담당하는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교육경력이 적은 교수나 시간강사가 많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분야에 따라 전공 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야는 교육경력이 많고 열성 있는 교수가 담당해야 학제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폭 넓은 교육을 할 수가 있다.

5) 학급규모의 축소

학급당 수강생 수를 줄여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양과목의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社會科學分野의 교양과목인 政治學, 經濟學, 社會學 및 國民倫理科目은 대부분 대단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환경 조건만 좋다면 대단위 강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시설이 아직도 절대로 부족한 한국적 현실에서는 학급 규모를 줄여 토론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독창적인 표현 능력과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주입식 강의를 통한 지식의 전달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6) 교과내용의 재정리

教養科目이 개론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의 재정리가 필요하다. 개론식의 교과서는 너무 많은 것을 취급하고 있어도 저히 한 학기에 모든 것을 강의할 수 없다. 너무 많은 분야를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씩만 가르치는 결과가 되어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핍되지 못한 관념은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이며 백과사전적인 것이 된다. 단편적인 지식은 교양이 아니다. 가르칠 것은 깊이 있게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6. 結 論

大學敎育의 목표는 국가의 장래를 수동적인 자 세계에서보다는 능동적인 자제로 개척하고 창조하

는 국가의 주체적인 유능한 인간자원을 개발함에 있다고 하겠다. 미래 사회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인간자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는 인간성의 개발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대학은 수적 증가로 인하여 대중교육 기관으로 변모하여, 지적 자율성에 기초한 엘리트교육에 대한 목표는 퇴색되어 가고 現代産業社會가 요구하는 수많은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가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의 전문화·다양화·세분화의 추세가 개인으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시제적인 요청이라 하더라도 敎養敎育 없이 전문지식의 전수와 탐구로는 대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학문은 통합성이 결여되어 사회현상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고도의 지적 세분화는 지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종합적인 가치판단의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교양교육이란 폭 넓은 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통합된 가치판단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인간교육이므로 교양교육을 통해서 학문의 지나친 세분화와 전문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간의 횡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사회의 공동 목적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敎養敎育을 크게 社會科學分野, 人文科學分野, 自然科學分野로 나누어 볼 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社會科學分野의 敎養敎育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이 있듯이 인간과 사회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렵다. 社會科學分野의 교육이야말로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가치, 판단의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소외 현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사회과학 분야 교양교육의 실태를 분석해 볼 때 교육의 질, 내용,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과목으로 인식되어 개론 또는 입문 형식의 과목으로 되어 있고, 강의 경험이 많은 열성

있는 원로교수가 담당하기보다는 경험이 적은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대단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통한 토론식의 강의는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필수과목을 줄여 선택 학점의 폭을 넓혀야 한다.

둘째, 주제와 문제 중심의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야 한다.

셋째, 전공기초와 교양을 분리하여야 한다.

네째, 교과과정을 1~2학년 중심에서 4년간 계속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급당 수강생 수를 줄여 소단위 강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주입식 강의를 지양하고 질의와 토론 중심의 강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담당 교수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광익, 외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1986.
- 김려수, 철학과 교양교육, 대학교육, 제 2호,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1983.
- 김정배,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문제와 전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6.
- 김진단,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소견”, 대학교육, 제 2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
- 박종철, “교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대학교육, 제 15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5.
- 부종철, “대학 교양과정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18집, 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1984.
- 신극범의, 대학 교양교육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학생생활연구소.
- 정대현, “교양교육의 개념”, 대학교육, 제 2호,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1983.
- 함종규, “교양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대학교육, 제 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
- 현영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실험대학연구보고서, 문교부, 1977.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4년도 대학 교양·국민윤리 평가보고서, 1984.
-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인문·사회계열 교양교과목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1985.